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연구의 동향과 과제

노 혁 진 *

목 차

- I. 머리말
- II. 무문토기문화 개념정의의 제문제
- III.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조사연구의 최근 현황과 특색
- IV.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연구의 과제
- 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江原道の '무문토기-정착농경' 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문제와 과제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를 수평으로 3등분할 때 중앙부의 동쪽 반을 차지하는 강원도는 태백산맥과 동해안, 남-북한강 상류역과 철원평야 등 특색있는 지형지리와 자연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태백산맥의 울창한 삼림이 제공하는 동식물자원, 환태평양권 해양문화의 일부분인 동해안의 해양자원, 서해안 내륙의 한 가운데를 차지하는 철원평야, 그리고 남-북한강 상류의 담수어자원과 농경지대가 그것이다. 이러한 지형지리적 특색과 풍요로운 자원을 구비한 강원도는 특히 삼국시대 이전의 선사인 들에게는 최고의 생활터전과 활동무대가 되었다.

강원도의 선사시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는 미미하지만 일제시대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시 작은 1970년대이며, 1980년대 와서 지역고고학자에 의한 일관성있는 활동이 전개되었고, 대부분의 중요유적은 1990년대 이후에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발견, 발굴된 유적의 수와 규모를 비교하면 강원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조사의 빈도가 적고, 문화해석에 있어서도 해결하고 극복해야할 제약과 한계가 많다. 이러한 강원도의 특색과 강원고고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 한림대학교 사학과 교수

본고에서는 강원도 선사시대의 문화가운데 한반도에서 수렵어로채집문화의 시대가 물러가면서 등장, 확산한 '無文土器文化'로 학계에서 호칭하는 정착농경문화에 한하여 최근의 중요성과를 종합하고 문제점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연구사적인 고찰은 몇 차례 시도된 바 있기 때문에¹⁾ 여기서는 최근의 중요발굴성과에 초점을 두겠다.

II. 무문토기문화 개념정의의 제문제

韓國式 三時期法에 의하면 무문토기문화는 청동기시대에 들어간다. 그러나 청동기시대 또는 청동기문화와 무문토기문화의 개념과 각각의 사회문화적 내용과 상호구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시된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실제 사회문화상과 설명용 개념사이의 불일치와 혼선의 문제는 수렵어로채집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와 철기보급으로 계속 발전하는 철기시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먼저 용어를 보면, 한국고고학에서 무문토기는 즐문토기의 대조어이고, 즐문토기문화와 무문토기문화의 선후가 전국의 유적에서 층위적으로 증명된 후, 삼시기법으로 전자를 신석기시대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그 이후, 즉 무문토기문화부터를 청동기시대로 소속시켰다.²⁾ 그러나 청동기가 없는 무문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이³⁾ 나온 이후 현재까지 조사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무문토기문화의 시기, 지역, 사회문화적 독자성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의 연장선에서 무문토기문화와 청동기문화는 서로 계통이 다르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으며⁴⁾ 이제 무문토기문화가 독자적인 문화명칭으로 통용되는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연구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새로운 고고학적 사실이 밝혀질수록 한국고고학의 개념 체계는 점점더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얽혀 가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한국의 신석기시대는 신석기문화의 보편적 요소인 정착농경이 미비되어 있고⁵⁾,

-
- 1) 白弘基, 「青銅器時代の 江原地方」, 『江原通史』 歴史編 第六章, 江原道, 1995, 338-367.
노혁진, 「江原道 青銅器 및 鐵器時代の 諸問題」, 『韓國先史考古學報』 5, 韓國先史考古學會, 1998, 12, 31-40.
 - 2) 金元龍, 『韓國考古學概說』(第三版), 一志社, 1986.
 - 3) 尹武炳, 「無文土器 形式分類試考」, 『震檀學報』 39, 1975, p.7.
 - 4) 盧懋眞, 「韓國先史文化 形成過程의 時代區分」, 『韓國上古史學報』 第15號, 1994, pp.1-36.
「青銅器時代」, 『韓國民族의 起源과 形成(上) -李鮮馥, 韓永熙, 盧懋眞, 朴善周 共著-』, 翰林科學院叢書41, 小花, 1996, pp.119-183.
 - 5) 임효재, 『한국신석기문화』, 집문당, 2000, pp.15-6.

오히려 전형적인 신석기 정착농경문화임이 드러나고 있는 무문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의 문화로 탈바꿈시켜서 설명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한반도의 청동기문화는 오히려 철기와 함께 철기 시대에 성행하는 것으로 서술하는 등 제반 설명이 연속적으로 꼬여나가게 된다. 이것은 삼시기법을 포기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선사의 체계를 구성해보려는 데서 비롯하는 문제들에 다름이 아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자료의 증가와 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의 진전에 따라 결국에 가서는 삼시기법의 사용포기와 토착적 체계의 확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계에서는 아직 강도는 차이가 있지만 이와 같은 맥락의 인식과 주장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이다.⁶⁾ 이러한 움직임은 소위 삼시기법 체계를 요지부동의 정설로 변함없이 고수하는 북한학계나 90년대 초까지도 삼시기법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느끼지 않았던 남한학계의 사정과 비교할 때 분명한 변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이 시대적 소속과 개념설정의 문제를 안고있는 무문토기문화는 그 사회문화적 독자성을 뒷받침하는 발굴자료가 증대되어 왔으며, 이제 무문토기문화라는 개념 뿐만아니라 무문토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청동기시대라는 기존용어와 겸용됨으로서 혼란이 가중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무문토기문화에 대하여는 아직 그 상세한 사회문화적 내용과 발전과정의 시말에 대하여는 모르는 것과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면, 기원문제, 즉 즐문토기문화로부터의 이행 또는 즐문토기문화와의 접변, 또는 독자적 출현의 과정이 거의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삼시기법이 즐문토기문화만을 신석기시대에 넣었고, 그 다음부터를 모두 청동기시대에 편입시키고 난 뒤에, 청동기시대의 시작을 청동기의 기원문제로 다루어서 단지 청동유물의 발생과 전파 및 시기지역별 유형과 편년의 문제를 추적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무문토기란 그렇게 설정된 청동기시대의 주민들이 사용한 용기로 간주하고 마제석기, 농경정착, 지식묘 등도 청동기시대 문화의 일환으로 서술해옴으로서, 무문토기문화를 독자적인 문화복합체로 따로 구분해서 그 출현과 발전과정을 다루어야 할 의문이나 필요성이 처음부터 무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총위로 입증된 바와 같이 무문토기문화는 즐문토기문화의 바로 다음에 등장한다. 만약 이러

6) 최몽룡,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 『한국사』3:청동기문화와 철기문화, 국사편찬위원회, 1997, p.14.
 최성락, 「제7장 시대구분론」, 『한국고고학의 방법과 이론』, 학연문화사, 1998, p.211-231.
 李清圭, 「先史考古學」, 『韓國 歷史學界의 回顧와 展望』:1998, 『歷史學報』 第163輯, 1999.9, 歷史學會, p.453.

한 무문토기문화의 고고학적 유물조합 속에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서 청동기의 제작과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문화를 바로 청동기문화로 간주해도 된다. 즉 '신석기시대 = 즐문토기문화'와 같은 인식과 이해가 '청동기시대 = 무문토기문화'에도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청동기를 구성요소로 갖추지 않은 무문토기문화의 실상이 더욱 더 확대 구명될수록 그만큼 청동기시대 안에서 무문토기문화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성격을 정리할 것인지의 문제도 함께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역적 시차가 있으나 철기시대의 시작은 철기의 사용부터로 잡는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안에서 무문토기문화의 문화복합을 구분해내고 남는 부분은 무문토기문화와 공존하거나 그 후에 속하는 문화내용부터 철기등장 이전까지의 문화가 된다. 이러한 문화는 소위 요녕청동문화와 한국식청동문화로 명명한 문화로 수렴된다. 요녕식 동검과 각종 청동기의 제작사용을 문화설정의 기준으로 하는 요녕청동문화의 경우 그 문화중심과 유물분포의 중심은 요녕반도이며, 한반도는 그 주변지대에 속하는 사실이 청동기조합의 차이와 청동기의 발견 빈도와 분포양상에 의하여 분명해지고 있다. 반면 한국식동검과 정문경 등의 독자적인 청동기조합을 기준으로 설정된 한국식청동문화는 그 문화발생지와 유물유적분포의 중심이 한반도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요녕청동문화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문화의 주변지역이나 교류지역에 불과하게 된다. 그리고 한국식청동문화의 경우 시작은 순전한 청동기문화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나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문화로 발돋움하기 전에 철기가 등장함으로써 철기시대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결과적으로 청동기의 제작사용과 그에 결합된 청동기문화를 기준으로 청동기시대를 설정할 경우 한반도 안의 요녕청동문화와 한국식청동문화는 모두 자격이 불충분하다. 그리고 한국의 청동기시대를 한반도 안에 국한시킬 경우, 한반도 자생의 본격적인 청동기문화는 사실상 철기문화에 주도된 한국식 청동기문화만이 해당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 안에 포함시킨 한반도의 문화 가운데 주류가 되는 문화는 발달된 마제석기를 성용했던 정착농경문화인 무문토기문화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삼시기법의 기본 틀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조건을 붙이고 편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보완하려들수록 한국 선사시대의 체계는 일관성이 없고 더욱 더 궁색한 모습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 앞으로 고고학적 자료증가와 더불어 한반도 무문토기문화의 지리적 영역과 그 사회적 성격과 구조 및 문화내용의 실상에 대한 파악이 진전되어 갈수록 그만큼 청동기시대

의 이러한 곤란한 모습은 심화될 것이며 청동기시대와 무문토기문화 또는 무문토기시대라는 독자적 개념들은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할 것이다. 그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이유는 항상 변함이 없다. 전자는 사실상 유럽의 일정한 지역문화권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이며 후자는 유럽과는 지구반대편에 동떨어진 한반도의 토착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개념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앞으로 수립될 토착적 시대구분체계는 지금까지 고고학적 유물조합의 차이에 의하여 밝혀진 즐문토기 위주의 수렵어로채집문화, 무문토기문화, 요녕청동문화, 한국식 청동문화라는 독자적인 문화복합만큼은 분명하게 상호 구분하여 각각의 사회문화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틀이 되어야한다. 이 가운데 본고의 주제에 속하는 무문토기문화는 목공구, 무기, 수렵도구 및 농경도구 위주의 각종 마제석기의 성용, 심발형, 호형 한 세트의 대소 각종의 무문양 적갈색 평저토기, 지석묘, 정착취락생활, 알곡농경 위주의 생계경제, 그리고 평안도와 함경도 이남부터 울릉도, 제주도에 이르는 지리적 영역 등을 그 문화 특색으로 한다.

이러한 무문토기문화의 구분과 정의에 대하여, 무문토기문화를 전후기로 나누어서 필자가 제시한 내용의 문화는 전기로 다루고, 점토대토기와 장경호, 흑도, 대축토기 등의 토기로 구성되는 문화 또는 단계를 후기로 설정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거론한 청동기시대의 개념혼돈문제를 가중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에 앞서 개념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무문토기문화를 전, 후기로 나누는 안에서는 후기무문토기는 소위 점토대토기문화를 지칭한다. 따라서 점토대토기와 한국식청동유물조합은 동일한 유물조합이기 때문에 점토대토기문화란 다른 아닌 한국식동검문화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후기로 구성되는 무문토기문화란 결국 청동기시대의 전 기간에 걸치는 문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 무문토기문화 또는 무문토기시대라는 용어를 쓸 경우 이 말은 청동기시대와 동격에 차이가 아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청동기시대의 문화를 토기의 관점에서는 무문토기문화, 청동유물의 관점에서는 청동기문화를 따로 따로 지칭하게 되는데, 동일한 문화, 즉 동일한 고고학적 유물조합에 대하여 굳이 이원화된 문화개념과 시대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래 청동기문화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무문토기문화의 독자적인 문화복합체로서의 개념도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희석된 개념은 청동기시대라는 외래개념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선사문화의 특성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부적합한 명칭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럴 경우,

무문토기문화 또는 무문토기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 전기 단계에서는 청동기가 없으나 후기에 청동기가 포함되게 되는데, 청동기의 유무와 상관없이 토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 청동기 뿐만아니라 철기사용 이후의 무문토기를 사용한 문화도 무문토기문화나 무문토기시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개념이 되어 버리면 애초에 의도했던 독자적인 시기나 문화를 지칭하는 명칭으로서의 사용가치도 사라지게될 뿐만아니라 요녕청동문화와 한국식 청동문화라는 독자적인 문화유형과의 구분도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필자 생각으로는 한국선사시대의 여러 문화유형 가운데 하나의 독자적인 문화유형을 지칭하는 의미로서 공렬토기문화, 송국리식토기문화, 각형토기문화와 같이 점토대토기문화라는 소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가치가 있겠으나, 무문토기문화라는 명칭은 앞서 정의내린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한반도의 마제석기를 성용한 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러므로써 한반도 중심의 무문토기문화와 요녕반도 중심의 요녕청동문화 그리고 한반도 안에 이룩된 한국식청동문화라는 3개의 커다란 문화복합체와 개념상의 혼란을 피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무문토기문화 연구의 현재까지의 사정을 고려해서 본고에서는 그 고고학적 개념을 적갈색 평저 무문토기의 사용, 마제석기의 성용, 정착취락주거지, 고인돌 축조 등으로 구성된 유물유적복합체로 한정하며, 소위 점토대토기문화 및 청동기포함유적의 성격에 대하여는 따로 다루고자한다.

Ⅲ.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조사연구의 최근 현황과 특색

강원도는 지형지리적으로 크게 3구분이 가능하다. 우선 태백산맥에 의하여 영동과 영서로 2구분되고, 영서는 다시 북한강-남한강 수계권과 임진강-한탄강 수계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문화지리적으로 보면 영동권의 문화는 태백산맥과 동해안의 사이에서 주로 縱으로 전개되었고, 영서의 경우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한 임진강-한탄강권에 속하는 지역은 현 서울과 대동강 사이에서 위아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남한강과 북한강의 상류역에 해당하는 한강권의 경우는 한강의 수로체계를 따라서 문화의 흐름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현재 이 3 문화권역은 행정구역상의 강원도안에 들어와 있으나, 역사적으로 보면 영동문화는 38선 너머 북강원도와 함경도 및 경상도 동북부로, 한탄강-임진강권은 경기북부와 황해도를 포함하는 중서부권으로, 그리고

한강권은 한반도 정중앙부위 안에서 각각 그 문화적 특색을 발현하고 신장시켜 나아갔다. 그러나 세 권역간의 문화적 교류와 연결도 상당한 수준에서 전개되었음을 최근의 고고학적 조사가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권역별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조사를 축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문토기 문화에 속하는 유물이 일제시대에 학계에 처음 알려지게 된 후⁷⁾ 긴 공백기가 지나고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춘천시신북면천전리(구명 춘성군신북면천전리)의 지석묘를 발굴한 것이 최초의 정식학술발굴조사였으며⁸⁾, 1971년에 문화재관리국의 소양댐수몰지구발굴조사가 당시로서는 강원도의 가장 큰 고고학적 사업이었다.⁹⁾ 그러다가 1977년에 와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춘천시 중도유적을 발견, 발굴을 개시한 이후부터 본격적인 조사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1980년대에 이르러 지역고고학자에 의한 조사연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¹⁰⁾ 비슷한 시기에 영동에서는 양양 오산리 유적이 점차적으로 국내외 학계의 주목을 끌면서 조사연구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특히 1980년대부터는 강릉대 박물관을 비롯한 지역학술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제발굴을 실시함으로써 선사와 고대의 유적발굴이 가속화되었다. 영동지방 무문토기문화유적으로는 강릉시연곡면방내리, 속초시조양동, 양양군양양읍포윌리, 강릉시교동 등이 발굴되었다.¹¹⁾ 90년대 들어서는 영동영서의 지역고고학자와 강원도 및 산하 기관의 요청과 협조에 의한 학술 조사와 늘어나는 구제발굴을 통하여 각 문화와 시대의 대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의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발과 활동이 늦은 강원도의 고고학은 앞

7) 有光教一,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遺物」, 『考古學雜誌』 pp. 28-11, 1938.

8) 國立中央博物館, 『韓國支石墓研究』, 1969, 본문pp.79-98, 도판 pp.11-22.

9) 문화재관리국, 「소양댐수몰지구 유적발굴조사」, 『팔당소양댐수몰지구 유적발굴종합조사보고』, 1974.

10) 이 시기에 중도를 중심으로 한 북한강상류에서 전개된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國立中央博物館, 『中島』 I(1980), II(1981), III(1982), IV(1983), V(1984), 國立中央博物館古蹟調查報告 第12,3,4,5,6冊.

任世權, 「春川中島の先史文化」, 『韓國考古學報』9, 1980, pp.45-69.

中島遺蹟發掘調查團, 中島發掘調查報告書, 1982.

최복규, 정연우, 「중도에서 발견된 선사유물연구」, 『강원문화연구』2, 1982, pp.47-72.

강원대학교박물관, 『중도고인돌 발굴조사보고』,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2집, 1984.

강원대학교박물관, 『중도유적 지표조사보고』,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제3집, 1984.

翰林大學博物館, 『新梅里支石墓住居址發掘調查報告書』, 1986.

11) 8-90년대 영동지방 무문토기문화유적에 대한 발굴결과는 다음과 같다.

江陵大博物館, 文化財研究所,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 1991.

江陵大博物館, 文化財研究所, 『江原嶺東地方의 先史文化研究II』, 1992.

강릉대박물관, 『江陵 坊內里 住居址』, 강릉대학교박물관연구총서6책, 1996., 강릉시교동2지구 택지개발지역 문화유적발굴조사 약보고서, 1997,12.

서 나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채비를 갖추고 막 출발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이처럼 강원도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조사연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특색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종합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중요발굴사례를 통하여 그 특색의 일단을 짚어보고자 한다. 남-북한강권의 중요발굴유적은 춘천시서면신매리 유적이다. 1984년 신매3리에서는 무유물 간층을 사이에 두고 하층과 상층에서 무문토기 주거지가 발견되었다.¹²⁾ 홍수로 무너진 돌 부분에 대한 국부발굴이라서 주거지의 구조를 알 수 없었으나 하층의 파괴주거지 바닥에서 공렬토기가 확인되었고 상층에서는 주거지 1기와 무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상층출토 무문토기에서는 공렬토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국식청동문화의 점토대토기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신매3리유적의 층위와 토기양상을 통하여 북한강권에는 점토대토기문화 이전에 최소한 두 단계의 무문토기문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그 중 전기는 공렬토기문화임이 밝혀졌고, 상층의 경우 발굴면적에서만 공렬토기 구연부편이나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이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지만, 후기단계는 공렬토기도 점토대토기문화도 아닌 무문토기의 한 단계라는 가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1996년에 신매2리에서 길이 100m의 4차선 도로구간에서 40여기의 주거지가 발굴되었는데 무문토기 마을의 한가운데 위를 4차선 도로가 지나가는 결과가 되었지만, 도로구간 안의 주거지 숫자만으로 따져도 지금까지 발굴된 강원도 최대의 무문토기취락이 된다. 여기서는 전형적인 공렬토기가 출토되었다.¹³⁾ 연대문제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곧 보고서로 간행되겠으나 신매리의 층위와 토기를 통하여 강원영서의 가장 이른 단계의 무문토기문화는 공렬토기문화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영동권에서는 속초시조양동, 양양읍포월리, 명주방내리 등지에서 무문토기문화의 주거지가 발굴되기 이전에 함북무산호곡동¹⁴⁾, 함남영흥읍¹⁵⁾과 북청군중리¹⁶⁾, 그리고 고성군일원¹⁷⁾ 등지에서 공렬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함경도로부터 강원영동으로의 전파경로는 예상되어왔지만

12) 翰林大學博物館, 『Ⅲ 春城郡新梅里住居址發掘報告, 新梅里支石墓住居址發掘報告書』,

翰林大學博物館研究叢書1, 1986, pp.81-165.

13) 한림대학교박물관, 『춘천시서면신매리 신매대교부지발굴조사 약보고서』, 1996.8.

14) 황기덕, 「무산읍 범의구석 원시유적 발굴중간보고」, 『문화유산』 1960-1, 1960, pp.52-75.

15) 서국태, 「영흥읍 유적에 관한 보고」, 『고고민속』 65-2, 1965, pp.35-45.

16) 안영준, 「북청군 중리유적」, 『고고민속』 66-2, pp.24-27.

17) 崔淑卿, 「花津浦周邊의 土器石器支石墓」, 『梨大韓國文化研究院叢書』7輯, 1966.

이러한 예상이 영동지방에서의 최근발굴로 확실한 뒷받침을 받게 되었다. 나아가서 경북울진 군기성면봉산리에서도 공렬토기 주거지가 발굴됨으로서¹⁸⁾ 이러한 전파흐름은 동해안을 따라 경상도지방까지 도달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중요유적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발견, 발굴된 강원도내 유적분포에서 한국 무문토기 문화의 착근성과 편만함을 실감할 수 있다.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이지만 문화지리적으로는 강원영동권역에 속하는 울릉도에서도 1998년에 와서 고인들의 소재가 확인되고 무문토기가 채집되었다.¹⁹⁾ 그리고 영서의 한강권역을 보면 북한강 최상류의 양구고대리²⁰⁾와 인제월학리²¹⁾, 남한강 최상류의 영월외룡리²²⁾와 평창강 상류역²³⁾과 정선소골²⁴⁾ 등지에서 10기 내외의 고인돌 군집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지점들은 팔도가운데 산세가 가장 험하다는 강원도 안에서도 심산유곡의 오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차량교통문화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종 지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동생활을 하였던 수렵어로채집민인 즐문토기문화인들도 활동영역으로 삼기가 쉽지 않은 지점에 정착농경민인 '무문토기-지석묘인' 들이 취락을 이룩하였다는 사실은 무문토기문화의 착근성과 편만성, 그리고 한국적 토착성의 깊이와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해안과 강안 그리고 내륙에 산만하게 퍼져 살던 수렵어로채집민 들을 흡수통합하고 명실공히 한국선사의 주인공 집단으로 등장한 '무문토기-지석묘인' 이 농경과 정착이 가능한 한반도 구석구석에까지 삶의 뿌리를 내린 모습과 함께, 역사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농경사회와 그 문화는 '무문토기-지석묘인' 이 이룩한 정착농경문화를 근간과 모체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강원도내 고고학적 조사연구의 진전속도를 고려할 때, 앞으로 발견, 발굴될 무문토기문화유적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농경정착의 여건이 불리한 강원도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유리한 여건을 갖춘 타 지역 무문토기문화인들의 착근성과 편만성도 더욱 더 공고해질 것임이 분명하다.

18) 江陵大學校博物館, 『건설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울진공항건설실시설계(토목 및 항공보안시설) 매장문화재시굴조사보고서』, 江陵大學校博物館學術叢書 24冊, 2000, 2.

19) 서울大學校博物館, 『鬱陵島-考古學的 調查研究-, 1998.

20) 양구군, 강원대박물관, 『양구고인돌』, 1992.

21) 한림대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보』 제2호, 1994.

22) 寧越郡, 翰林大學校博物館, 『寧越外龍里 住居址支石墓發掘報告書』, 翰林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12, 1998.

23) 최복규, 김경진, 정연우, 김용백, 「평창지역의 선사유적과 그 문화」, 『강원사학』2, 1986.

24) 단국대박물관, 『정선덕천리소골유적(1) -고인돌발굴보고-』,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고적조사보고 제17책, 1993.

이와 같이 한국 무문토기문화의 성격과 구조가 강원도 무문토기문화의 특색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그 지리적 위치와 지형적 형세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의 무문토기문화는 남-북한강의 상류로부터 시작되는 수계를 통하여 남한전역으로 전개되고, 동북한의 문화도 강원영동을 경유하여 남쪽으로 전달된다. 강원 영동권의 공렬토기문화는 영서의 남-북한강권과 임진강-한탄강권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남한강의 최상류역인 정선소골과 북한강의 최상류인 인제월화리는 각각 남한강과 북한강의 발원지인 오대산과 금강산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발원지의 직하류에 속하는 곳이다. 공렬토기문화는 남한강의 중류권인 경기도여주군 혼암리²⁵⁾와 북한강의 중간지점인 춘천일원에서 뿐만아니라²⁶⁾ 한강의 하류권인 서울일원에서 여러 곳에서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한강권 전역에 정착한 대표적 문화전통으로 인정받고 있다.²⁷⁾ 한편 행정구역상 철원군을 차지하는 임진강-한탄강권의 경우는, 이러한 한강권의 공렬토기문화 전통과 대동강권의 각형토기문화 전통의 사이지대에 속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어느 한쪽이 주도적이었는지 간에 일정한 수준의 양자간 교류혼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함경남도 원산과 강원영서의 철원을 잇는 추가령지구대를 따라 영동-영서간 교류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전파의 양상이 복잡해진다. 왜냐하면 함경남도 원산일대의 공렬토기문화가 추가령지구대로 진입해서 철원지방에 정착하고 다시 남으로 한강 하류역으로 전개되면서 북한강의 상류역으로 거슬러 올라왔을 가능성까지도 고려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북한강권 공렬토기문화의 전파경로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하여는 북한강과 남한강의 최상류에서 공렬토기 유적이 발견됨으로서 복수루트를 통한 태백산맥 횡단전파론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북한강 상류역의 공렬토기 유적은 하류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영동에서 태백산맥을 건너서 계곡을 따라 최상류로부터 내려왔다는 주장이다.²⁸⁾ 이와 같이 강원영서 무문토기문화의 전파경로에 대하여는 [함경남도- 추가령지구대 - 철원- 한강하류- 북한강상류] 선과 [함경남도- 강원영동- 태백산맥횡단- 북한강상류- 한강하류] 선이 모두 가설

25) 서울大博物館, 『欣岩里住居址 I-IV』, 1973,46,8.

26) 이 지역 선사문화에 대하여는 다음의 개관이 있다.

盧熾眞, 「北漢江 先史文化類型的 形成과 特色」, 『古文化』 第40,1合集, 1992,12, 韓國大學博物館協會, pp.3-29.

27) 李清圭,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 『韓國上古史學報』 第一號, 韓國上古史學會, 1988,12, pp.37-92.

28) 盧熾眞, 「孔列土器 文化特色의 傳播網」,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古代篇, 高麗時代篇-, 一潮閣, 1994, pp.20-34.

로 제시되어 있다. 이 문제는 결국, 함경남도로부터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에 걸친 지대와 남한강 최상류의 영월-태백-정선 일원, 그리고 인제-양구 일원의 북한강 상류권, 그리고 원산에서 철원에 이르는 추가령지구대 구간 안에서 앞으로 발견될 공렬토기 유적의 문화양태를 비교해야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추가령지구대, 북한강상류, 남한강상류를 비롯한 ‘복수루트 태백산맥횡단론’을 검증가설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추가령지구대로 들어온 집단과 한강을 따라 내려온 집단이 한강하류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중서부지방에서 병존하였을 가능성도 고려대상에 넣어야한다.

공렬토기문화에 덧붙혀 언급할 것은 소위 점토대토기문화의 문제이다. 강원도 안에서 점토대토기 출토유적이 정식으로 발굴된 것은 1995년 한림대박물관이 발굴한 춘천시 칠전동유적이다.²⁹⁾ 그리고 1987년 북한강의 최상류인 양구군 해안면해안읍내 저구릉지대에서 점토대토기 취락유적이 확인되었고 여기서는 점토대토기와 대족토기를 포함한 다수의 토기편이 발견되었다.³⁰⁾ 이와 관련하여 1961년 김원용 교수가 미금시 수석동(구명: 경기도 남양주군 수석리)에서 점토대토기 취락유적을 발굴하였다.³¹⁾ 이 세 유적간의 연대차이는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모두 북한강권에 속하며 이러한 북한강권 점토대토기 문화집단의 확산경로는 “수석리-칠전동-해안”이라는 북한강 노선을 따라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한림대박물관과 강릉대박물관이 동해-주문진간 동해고속도로건설구간인 강릉시연곡면송림리와 양양군현남면인호정리에서 각각 점토대토기 출토 주거유적을 발굴하였다.³²⁾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원주시부론면법천리의 고분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점토대토기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³³⁾ 이러한 최근발굴내용과 그 문화적 해석은 추후 보고서가 간행된 후 심도있게 논의되겠으나, 강원도의 영동권과 남한강권에서도 점토대토기문화의 유적이 발굴됨으로서 영동권과 남-북한강권 점토대토기문화의 지역별 양상과 전파경로의 문제도 앞서 살펴본 공렬토

29) 翰林大學校博物館,韓國土地公社,『漆田洞粘土帶土器遺蹟 發掘報告書』,翰林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9,1996.
 30) 金秉模,趙由典,沈光注,李海一,「江原道の 考古學資料」,『民統線北方地域 資源調査報告書』,江原道,1987, pp.281-305.
 최복규,최승엽,이해용,「양구군의 선사유적 및 고분」,『楊口郡의 歷史와 文化遺蹟』,江原道,楊口郡,江原大學校,1997, pp.72-78.
 31) 金元龍,「水石里 先史時代 聚落住居址」,『韓國考古學研究』,一志社,1987, pp.395-419.
 32) 강릉대박물관,〈동해고속도로(동해-주문진간) 건설지역 문화유적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2000.6.
 한림대박물관 발굴조사단,〈동해-주문진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구간 문화유적발굴조사 지도위원회의자료〉(강릉시연곡면송림리 점토대토기유적),2000.6.
 33) 國立中央博物館,〈原州 法泉里 古墳群 -第2次 學術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2000.5.

기문화와 비슷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유적은 주거지와 지석묘뿐이다. 이러한 단순한 발견양태는 지석묘가 공렬토기문화집단의 고유 묘제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최근 종합된 강원도 지석묘의 분포와 분류에 의하면³⁴⁾ 소위 탁자모양과 바둑판모양 그리고 무지석식의 형태가 모두 확인되고 있으나 바둑판모양은 2기뿐이고 대부분은 탁자모양과 무지석식에 속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미발굴 사례 가운데는 탁자식이 쓰러져 묻혀서 상석만이 지상에 노출된 모습도 많기 때문에 현재 무지석식처럼 보이는 것들도 발굴하면 탁자식으로 밝혀질 것이 많다.

또 하나의 특색은 영동-영서간 문화적 공통성과 차별성의 문제이다. 문명과 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선사시대에는 지형, 지리적 격차에 따라서 사회집단이 차별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문토기문화 이전의 수렵어로채집단계에서는 영서의 첨저빗살문토기문화와 영동의 평저토기문화는 분명한 계통적 차이를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영서의 남-북한강권과 철원군의 임진강-한탄강권은 오히려 위쪽의 대동강권의 각형토기문화나 아래의 금강권 송국리식문화가 차지하고 들어오는 것이나, 함경북도에서 동해안으로 흐르는 문화는 태백산맥 이동에 국한해서 길게 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문화확산의 순탄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태백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에도 불구하고 무문토기문화단계에 오면 영동 영서 모두 동일한 계통인 공렬토기문화집단이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만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각형토기문화와 공렬토기문화 그리고 송국리식문화가 상호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한반도에 출현한 결과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즉 공렬토기문화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기 때문에 함경북도로부터 경남해안에 이르기까지 동해안 전역은 물론 남-북한강과 한탄강-임진강권과 그 이하의 남부지방과 제주도까지 편만하게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 유형 모두 농경정착민의 문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렬토기인들만이 유달리 활동적이고 이동속도가 빨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다소 비약이 있지만, 먼저 공렬토기문화가 영동전역과 남북한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중부이남까지 확산된 후 각형토기문화가 대동강유역을 거점으로 세를 확대시켜 가면서 후에는 추가령지구대를 통하여 강원영동으로 진입한 결과 강릉시 교동에서 출토된 독특하게 이중으로 접어서 구연을 만든 소위 각형토기와 방불한 기형

34) 고동순, 「1.남한지역 가.강원도」, 『한국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II)』-분포,형식,기원,전파 및 사회복원-, 문화재청,서울대학교박물관, 1999, pp.483-599.

을 남긴 것이며³⁵⁾, 이 보다 더늦게 충청도 지방에 거점을 두고 출발한 송국리식 문화가 서쪽과 남쪽으로 전개되면서 울주검단리에서 본 바와 같이³⁶⁾ 먼저 정착한 공렬토기 문화권역으로 진출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다. 물론 공렬토기문화도 영동과 영서에 정착한 후 서서히 지역화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동일계통의 문화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지역화는 발굴자료가 축적되면 비교가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어렵다. 이와 같은 수렵어로채집단계와 무문토기문화단계에 한반도에서 전개된 새로운 문화의 출현과 확산의 전 과정은 소위 신석기-청동기 주민계승설이나 교체설과 같은 ‘삼시기법 문화해석’에 기초한 단순한 가설로는 설명해낼 수 없는 복잡한 실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강원도 영동영서의 무문토기문화의 성격구명과 확산체계의 수립은 한국선사문화의 복원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IV. 강원도 무문토기문화 연구의 과제

한국무문토기문화는 심도있게 접근하고자 할수록 풀리지 않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소위 서북한의 각형토기문화와 강원도중심의 공렬토기문화, 서남부 중심의 송국리식 토기문화 등 대소 각종의 적갈색 무문양 평저토기의 여러 유형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모체로 출현하게 된 것이며, 왜 그러한 특정모양의 토기가 따로 정형화되어 한반도 안에서 서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권을 이룩하게 되었는지의 쉼과정도 전혀 풀리지 않은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들이 한반도 안에서 상호 발생의 선후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정형화되어서 따로 따로 한반도 안의 다른 지역으로 안주해 들어왔는지의 문제도 아직 제기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무문토기인들이 한반도 각지에 산만하게 퍼져 살던 수렵어로채집 위주의 선주민들을 흡수 또는 통합해 가는 과정에 대한 가설이나 설명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식묘를 무문토기인들이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니면 지식묘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지식묘를 그들의 독창적 발상에 의하여 만들어냈는지, 전,후자 어느 경우라도 그 유형이 어느 지역의 어떤 유형인지의 문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중대한 문제들은 그 동안 소위 ‘삼시기법 문화해석논리’의 그

35) 강릉대학교박물관, 『강릉시교동2지구 택지개발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약보고서』, 1997, 12.

36) 釜山大學校博物館, 『蔚山檢丹里마을遺蹟』, 釜山大學校博物館研究叢書 第17輯, 1995.

늘에 묻혀서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즉, 신석기시대인들과 그 문화는 청동기시대인들과 그 문화에 흡수되었다거나 심지어는 신석기인들이 청동기문화를 발전시켰다는 도식적 해석의 상호논쟁이 관심의 주류였으며, 이러한 관심은 청동유물 또는 청동기조합의 발생, 시기, 성격, 지역차, 한반도 전파과정 등의 구멍에 몰두되어왔다. 이러한 경향과 추세는 그 동안 강원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무문토기문화 유적이 발굴되어 그 독자성이 크고 뚜렷하게 밝혀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그러 들거나 수정되지 않은 채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동기시대와 무문토기문화의 두 개념은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이는 삼시기법을 포기하고 새로운 토착적 시대구분체계를 수립해야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삼시기법으로 한국선사를 체계화시킨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시종 증가하고 있는 무문토기문화유적의 발굴사례는 그러한 논리와 당위성의 결말에 대한 분명한 예표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鉢과 壺를 한 셋트로 하는 대소 각종의 적갈색 평저 무문토기, 각종 발달된 마제석기의 성용, 고인들의 축조, 정착농경과 취락생활 등의 무문토기문화의 독자적인 사회문화체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강원도의 무문토기문화는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강원도 무문토기문화의 실상복원과 체계확립은 한국 무문토기문화의 성격구명과 체계수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 무문토기문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짧은 역사를 고려할 때, 앞으로 할 일과 풀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

우선 군사분계선에 의하여 분단된 남, 북강원도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연결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남측 군사분계선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는 이루어졌다.³⁷⁾ 이에서 더 나아가 급진전되고 있는 남북관계는 북강원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도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갖게 만든다.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강원도 무문토기문화의 많은 의문점이 풀릴 수 있다. 우선 철원-원산간 경원선철도가 개통되면 항상 도상추정에 불과했던 추가령지구대루트가설이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함경북도 무산호곡동, 함경남도 원산시와 영흥읍 등지에서 확인된 공렬토기 유적과 그 실물을 목도하게 되면 과연 공렬토기문화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왔는지의 여부가 현장에서 확인되고 그 초기양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문토기문화의 기원 및 지식묘의 동북한계의 확인 문제와도 결부된다. 이런 의미

37) 국립문화재연구소, 『軍事保護區域 文化遺蹟地表調査報告書』(江原道篇), 2000.

에서 당장의 추진과제는 남강원 고고학자가 제안하여 북강원 고고학자와 함께 북강원과 함경도 동해안 일원의 유적과 출토유물 견학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일은 최근에 창립된 江原考古學會가 주관하고 남, 북강원도의 사회문화교류의 차원에서 강원도의 협력과 지원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슷한 문제로서, 남, 북한강 최상류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확인된 북한강 최상류의 인제 월학리유적보다 더 상류에서 유적을 발견해야 한다. 즉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조사가 보다 자유스럽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유적을 찾아냄으로서 태백산맥 횡단코스의 신빈도를 높혀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취락의 발굴이 필요하다. 그 동안 90년대 들어서 강원도의 고고학은 각종 구제발굴의 결과로 급진전하였으나, 무문토기문화에 관한 한 전체 취락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취락의 경계를 파악하고 그 전체를 발굴한 사례가 강원도에는 아직 없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수 차례에 걸쳐서 부분적인 발굴을 시행한 결과 섬 전체에 걸쳐서 대규모 독립취락의 존재가 확인된 춘천시중도와 도로개설구간 안에서 40기의 주거지가 집중되어있고 그러한 집중양상의 지리적 범위가 파악된 춘천시서면신매리 유적은 최근 제주도가 사적으로 지정한 제주시삼양동유적³⁸⁾과 같이 강원도 무문토기문화를 대표하는 시범유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앞으로 누차에 걸쳐서라도 종국적으로 경계 전체를 다 발굴해서 취락전체를 놓고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화유형별 연계문제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이것을 토대로 수렵어로채집단계로부터 철기출현단계에 이르기까지 강원도안에서 형성된 독자적인 지역문화의 위상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역사시대에 접어들면 강원도의 춘천권에는 貊國, 영동에는 濊國과 悉直國 등 초기국가 또는 복합사회가 등장한다.³⁹⁾ 이러한 사회들은 기술적으로는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인 정치체로 출현한 것으로 보이며 삼국시대의 상반기까지 정치적으로 독자적인 세력과 대외적인 위상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고등사회는 단기간에 출현한 것이

38)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三陽洞遺蹟>(현장설명자료), 1999.

39)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글은 다음과 같다.

金澤均, 「春川貊國說에 관한 연구」, 『白山學報』 第30,1合號, 1985.

江原道, 「第二章 濊國, 貊國, 悉直國」, 『江原道史』 歷史篇, 1995, 413-456.

아니며 철기문화수용 이전부터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였다고 보아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토착문화의 주인공과 사회는 다름 아닌 강원도의 무문토기문화 집단이며, 이들은 농경생산력의 증가와 인구증가 및 거주지 확대의 꾸준한 성장확산과정을 거치면서 강원 전역에 생활의 뿌리를 내렸으며 철기의 도입이나 주변 정치상황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초기국가로 탈바꿈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들은 기존의 해안과 강안 그리고 산간에 퍼져 살던 수렵어로채집민들을 흡수한 집단이기도하다. 이와 같이 선사시대에 강원도 안에서 또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개된 일련의 연속적 사회발전과정의 복원이라는 강원고고학의 궁극적 과제의 해결은 그 중앙부에 자리잡은 주체세력인 무문토기문화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

V. 맺음말

강원도는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전개된 정치세력판도의 주변에 놓이게된다. 그리하여 그 문화역량이 한국전체와 타 지역의 문화형성과 사회변화에 영향력을 구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타 지역으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적인 발전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전의 상황은 다르다. 수렵어로채집문화의 시기에는 천혜의 산수와 자연생태를 갖춘 강원도는 그야말로 자연식량원의 보고였다. 동해안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하구원과 瀉湖에 먹이사슬로 연결된 동식물자원, 그리고 남, 북한강의 담수자원과 삼림 속의 다종다양한 동식물자원은 당시로서는 한반도 안에서 최고의 생활조건을 갖춘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과거상황은 양양오산리 유적발굴을 기점으로 시작된 영동권의 고고학적 조사연구에 의하여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 문화의 한반도 안에서의 위상은 정착농경민의 세상인 무문토기문화의 시기에 그대로 발현되었다. 지석묘, 적갈색 심발형의 공렬토기와 호형토기 및 적색마연토기 등의 무문토기조합, 발달된 마제석기조합, 장방형주거지 등의 문화특색으로 구성된 영동권역과 남-북한강권역의 무문토기문화는 그 독특한 지형지리적 경로를 통하여 한반도 중부와 남부로 확산된다는 사실때문에 그 성격과 체계의 규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상한연대의 문제, 지역권간의 연결 및 전파의 선후관계, 세부적인 발전단계의 구분, 취락의 규모와 구조, 탄화미와

같은 알곡농사의 직접적인 증거확보 등 필수적인 과제들이 숙제로 대두되어있다.

한반도 선사문화의 대세를 태백산맥 줄기의 동과 서 양쪽에서 살펴볼 때, 강원영동은 동반부 대세의 중앙부를 차지하고 강원 영서의 남-북한강 상류권은 한반도 정중앙의 문화를 포용한다. 따라서 선사시대에 관한 한 강원도는 명실공히 한반도 문화형성의 핵심지대(Nuclear Zone)의 하나로 보아도 될 것이다. 앞으로 강원도 선사문화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는 이러한 核心地帶論의 시각에서 많은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핵심지대론이 다룰 시대와 문화의 중앙부위를 무문토기문화가 차지하고 있다.